

거울 저 편의 세계

94년 2월 토아트 스페이스에서 있었던 정정화의 [시간과 원근법]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짧은 기간, 일정 공간을 차용하였다가 팍플랫 한 장으로 사라지는 전시처럼 그렇게 조용히 잠시 있다가 리뷰 하나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춘 전시였다. 이번에 정정화를 추천하게 된 것은 그녀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해온 경험 있는 작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2년 전 개인전의 성과를 늦었지만 다시 거론해본다는 의미와 함께, 국내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탓에 국내 화단에 거의 소개되지 못한 정정화의 앞으로의 활동에 주목해보자는 의도가 있다.

2년 전의 [시간의 원근법]전에서 정정화는 전시장 공간 안에 무엇인가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엇인가의 ‘설치’를 통해서 그것을 담은 공간을 활성화하고 다시 그 구조를 해체해버렸다는 점에서 그 전시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설치’라는 이름에 합당한 첫 국내전이였다. 반복되는 현재, 현재의 반사, 반사의 반사,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울의 저 편, 그 뒤죽박죽된 시간이 연출하는 앨리스의 공간 속에서 관객은 방금 지나온 과거시간의 자신과 끊임없이 다시 ‘상면 당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 공간은 아케이드형으로 장식된 화랑의 입구를 지나 좁은 계단을 내려가 전시장에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전시장 정면에는 화랑 입구에서부터 전시장의 벽까지의 거리를 원근법적으로 계산하여 프린트한 건물 입구의 대형사진-출입문만을 거울로 대체한-이 걸려있다. 관객은 전시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신이 조금 전에 들어온 입구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그는 사진과 거울 사이에서, 거울과 거울 사이에서, 거울과 투명거울 사이에서, 자신을 포함한 관객의 모습을 비추는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실점이 사라진 혼란스러운 시-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거울이 되어 자신을 반사하고, 아 거울이구나 하고 다시 보면 사실은 거울 저 편이 검은 거울을 통해서 스물스물 떠오르는가하면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벽에 서있는 모니터들 속에서 자꾸자꾸 다시 만나면서 소실점이 상실된 ‘시간의 원근법’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내 작업에는 ‘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건축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안과 밖의 경계이면서 투명하기도 하지요.”

정정화의 작업은 일단 건축 구조의 해석에서부터 출발한다. 닫힌 곳과 열린 곳, 구획 공간의 크기, 동선 등이 모두 계산되면 그녀는 창을 설치한다. ‘창’이란 그녀가 건축물을 해석하는, 혹은 다시 해체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은 때로는 사진으로, 거울로, 투명거울로, TV모니터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녀의 창을 통해서 견고한 구조는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안과 밖의 원근법이라는 오히려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겹쳐지는가 하면 투명거울 속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다분히 불확실하고 우연적이며 충동적인 어떤 부피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차별 선택된다. 그 선택된 시간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그 어느 때-진행형’의 서체일 뿐이다. 마치 두 개의 표면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무한한 깊이처럼 시간은 ‘진행형’의 축으로 확산된다.

그렇다면 정정화의 주제는 ‘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다. 그녀는 오브제 설치작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진작가, 틀-작가(frame-artist)인 셈이다. 그녀는 시간에 틀을 지운다. 그 틀이 바로 창이며, 거울이며, 사진이며, TV모니터들이다. 그 시간의 틀로 인해서 건축, 구조, 더 나아가 실재는 낯설고 불안해진다. 우리는 결코 잡히지 않는 시간의 미로 속에 초대되어 재현되고, 복사되고, 반사되고, 해체되고, 사라지고, 부활된다. 지금이 몇 시냐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앨리스는 한 번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정현이/아트 크리티크